



202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안대응 제3차 콜로키움

제주 초등 방과후 돌봄과 정책방향

| 일시 2020년 8월 10일(월) 14:00 ~ 16:00
장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중회의실(2층)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민무숙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우리 연구원 제3차 현안대응 콜로키움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의정 활동에도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이승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김인영 과장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고보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가정 내 양육부담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꾸준히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와 더불어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지역돌봄 협력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온종일 돌봄으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역 현장에 적합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그 의미는 무색해질 것입니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임 아동이나 ‘방과 후 나 홀로’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족 돌봄 공백 해소 및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부 정책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연구원에서에서는 '제주지역 초등 돌봄 체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제주지역의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례와 타 지역 사례를 공유하고, 마을에서의 안전한 방과 후 돌봄 방안을 지역사회와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고보선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염미경 제주대학교 교수님, 김진훈 복지 in 연구소 소장님, 김명선 제주 종달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박미란 구좌읍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장님, 이승아 제주도의회 의원님, 김인영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주지역의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 무 숙

2020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안대응 제3차 콜로키움

제주 초등 방과후 돌봄과 정책 방향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참석자 및 외부인사 소개	
14:05~14:10	인사말씀 ▶ 민무숙(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14:10~14:25	주제발표1 : 제주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 현황과 과제 ▶ 손태주(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사회: 신승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14:25~14:40	주제발표2: 서울 강북지역 초등 방과후돌봄 사례 ▶ 박수진(강북혁신교육지구 실행추진단 공동단장)	
14:40~15:40	토론 ▶ 염미경(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김진훈(복지 in 연구소 소장) ▶ 김명선(제주 종달초등학교 교장) ▶ 박미란(구좌읍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센터장) ▶ 이승아(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 김인영(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과장)	좌장: 고보선 교수 (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15:40~16:00	질의응답 및 마무리·폐회	

주제발표 1

제주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 현황과 과제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초등 방과후 돌봄 현안 대응 3차 콜로키움

제주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 현황과 과제

2020. 8. 10.(월)

손태주 연구위원



목 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부처별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 현황
3. 제주지역 초등 돌봄 수요 추정 및 지역 환경
4. 제주지역 사례조사 분석 결과 및 개선과제
5. 제주지역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전략 및 과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개요

- 과제명 : 『제주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 체계 연구』
- 연구기간 : 2020년 2월 ~ 9월
- 연구자 : (책임)손태주 본원 연구위원, (공동)김은정 국제대학교 교수
(공동)신승배 본원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일하는 부모의 초등 방과후 돌봄 요구 증가
 - OECD 평균 공적 방과후 돌봄(6-11세) 이용률 29%, 우리나라 12.5% (제주는 약 17%)
- 방과후 돌봄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지역의 돌봄 협력체계를 필요로 함
- 초등 방과후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협력 방안을 모색

2. 부처별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 현황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학교돌봄-마을돌봄 연계 초등공적돌봄 촉구

- '18. 4. 관계부처 합동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발표'
- '19. 1.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소속 관계부처 합동 온종일돌봄체계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 목표 : '17년 현재 33만명 → '22년 까지 53만명

구분	2017년	확대	2022년
총계	33만명	20만명	53만명
학교 돌봄	24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초등돌봄교실 7만명(3,500실)활용기능교실, 지자체 협업 3만명(1,500실)	10만 34만
마을 돌봄	9만 (취약계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마을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등)	10만 19만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운영 업무 매뉴얼

2. 부처별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 현황

◆ 돌봄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중앙지원단

중앙 부처	초등돌봄정책	중앙지원단(센터)	비고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온종일돌봄생태계구축 선도사업 1차년도 사업 수행 지원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보장원 (20.1.1.~)	'19.12.31.까지는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담당
	다함께돌봄센터	아동권리보장원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20.1.1.~)	'19.12.31.까지는 한국보육진흥원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담당
여성기족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	

주.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본조신설 2019.1.15.)에 근거, '19년 7.16.출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운영 업무 매뉴얼

2. 부처별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 현황(1)

구분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지역아동센터 (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가부)
시행 시기	2004	2004	2017	2005
법적 근거	✓ 교육부 고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운영 주체	해당 단위학교 학교장 또는 위탁	지자체 직영 또는 법인, 개인 등 민간단체 위탁	사회복지비영리법 인,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공간	학교 공간	학교 또는 지역 공간	지역 공간	학교 또는 지역 공간
대상	✓ 초등1학년~6학년 (돌봄교실의 경우 초1~초2 중심)	만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포함)	만6~ 12세 미만	초등4~중등3학년
지원 기준 (소득)	✓ 맞벌이가정 중심 (소득무관)	취약계층 중심 (중위소득 100% 이하)	맞벌이가정 중심 (소득무관)	취약계층 중심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형태	무상 (간식비등 일부 자부담)	무상 (소득별 이용료 5만원 이내 자부담)	이용료 일부 부담 (이용료 10만원 이내 지지체별 결정)	무상
지원 내용	보호, 교육, 놀이, 방과후학교 연계 및 일부 급간식 지원 등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급·간식 지원 등	보호, 교육, 놀이, 체험, 학습, 급·간식 지원 등	체험활동, 보충학습지원, 급식, 상담 지원 등

2. 부처별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 현황(2)

구분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지역아동센터 (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가부)
[19년 운영]	제주	214개 교실 (5,234명)	66개소 (1,732명)	-	9개소 (240명)
	2019년 말 기준, 제주도 전체 초등학생 수(40,640명) 대비 공적돌봄 체계에서 약 17% 이용				
전국		13,910교실 (290,358명)	4,217개소 (초등 98,501명)	173개소 (2,968명)	280개소 (초등 6,117명)
운영 시간	학기	방과후~17시 (일부 저녁돌봄 운영)	14시~19시 (필수운영시간 1일 8시간 이상)	14시~19시 (주5일, 1일 8시간 이상, 자율 운영)	방과후~21시 (주5~6일 운영, 1일 4시간 이상)
	방학	학교여건 따라 자율 (최소 4시간 이상)	12시~17시 필수운영시간 포함; 8시간 이상 운영)	9시~18시 (지역 여건 따라 자율)	1일 4시간 (여건따라 자율운영)
돌봄 인력		돌봄전담사 (유초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	시설장,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 유초중등교원자격 증 소지자, 보육교사)	센터장, 돌봄교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초중등교원자격 증 소지자 등)	팀장, 담임 (청소년지도사, 초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2. 부처별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 현황(3)

구분	수돌을육아나눔터 (제주도)
시행시기	2016
지원 근거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및 '더 제주처럼'
운영주체	마을회, 자치회, 비영리법인(단체) 등
대상	0세~초6
지원기준	소득무관
지원 형태	무상
지원 내용	일상 돌봄과 육아 나눔 및 돌봄 공동체 활동 공간
운영 규모	총 36개소 ('19년 기준)
운영 시간	나눔터별 자율 운영
돌봄 인력	주민 자치방식의 무보수 봉사 인력

2. 부처별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 현황

◆ 방과후 돌봄 정책의 문제점

- 부처별 사업 추진에 따른 돌봄 정책의 연계성 부족
- 전달체계의 유사 분절에 따른 체계적 정책 수행의 어려움
- 공적돌봄 공간 및 운영주체 등 마을의 물적, 인적 자원 발굴의 한계

◆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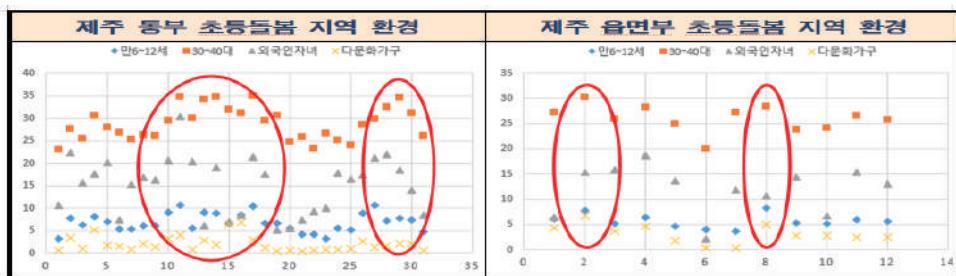
-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초점을 둔 안전한 돌봄서비스로의 지원
- 마을 단위의 다양한 조직 간의 연계 협력 방안 모색 필요
- 지역(읍면동)별 수요조사를 근거로 돌봄수요 대비 공급 매칭 필요
-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민간자원 발굴 및 관련 지원체계(조례 포함) 필요

3. 제주지역 초등 돌봄 수요 추정 및 지역 환경

- 1단계 : 지역(읍면동별) 환경 분석(잠재적 돌봄 수요 추정)

	인구사회적 돌봄수요 추정	저소득취약 돌봄수요 추정			활용가능 공간 추정	
		만6~12세 아동 비율	30~40대 비율	외국인 자녀비율	다문화 가구비율	수놀을 육아나눔터
제주 평균 (총 개수)	7.5	29.5	12.4	2.3	(36)	(66)
예	일도1동	3.2	23.1	10.6	0.5	
시	일도2동	7.7	27.6	22.3	3.5	1
	이도1동	6.2	25.5	15.7	1.0	1
	이도2동	8.1	30.6	17.6	5.1	1

- 2단계 : 각 요인별 평균 이상 지역(도식화)



3. 제주지역 초등 돌봄 수요 추정 및 지역 환경

● 3단계 : 요인별 잠재적 돌봄 수요가 평균 이상인 지역 추정 결과

		인구사회적 돌봄수요 추정		저소득취약 돌봄수요 추정	
		만6~12세 아동비율 평균 7.5%이상	30~40대 인구비율 평균 29.5%이상	외국인자녀 비율 평균 12.4%이상	다문화가구비율 평균 2.5%이상
동부	제주시	동지역	일도2동, 이도2동 화북동, 삼양동	일도2동, 삼양동 봉개동	일도2동, 이도2동 화북동, 삼양동
		서지역	아라동, 오라동 노령동, 외도동	아라동, 오리동, 연동 노령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오라동, 외도동 이호동
	서귀포시	동지역	동홍동, 서홍동 대천동	서홍동	동홍동
		서지역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읍면부	제주시	동지역			구좌읍, 조천읍
		서지역	애월읍	애월읍	애월읍, 한경면
	서귀포시	동지역			한림읍, 애월읍
		서지역	대정읍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3. 제주지역 초등 돌봄 수요 추정 및 지역 환경

● 4단계 : 잠재적 돌봄 수요가 평균 이상인 지역의 공간 분포

초등아동/30~40대인구/외국인자녀/다문화가구비율 평균 이상 지역 및 돌봄 공간 분포		
■ 군집1형태	초등아동/30~40대 인구비율과 저소득층가구비율 높은 지역	▶ 마을특성별 공적돌봄+틈새돌봄 필요
■ 군집2형태	구도심지역의 저소득층가구비율 높은 지역	▶ 기존 공적돌봄 연계협력 필요
■ 군집3형태	인구비율 낮지만 저소득층가구비율 높고 면적이 넓은 농촌지역	▶ 지역 고려한 돌봄 접근성 강화



3. 제주지역 초등 돌봄 수요 추정 및 지역 환경

◆ 제주지역 방과후 돌봄 사례 분석을 위한 지역 유형화

	도시형		도농복합형
	과밀도시형	구도심형	
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등지자체 자체사업 공모 선정공동체 유경험 돌봄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적 돌봄기관 연계 협력으로지역 기관 지정 위탁 운영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적 돌봄기관 지역 거점형 운영지역 기관 지정 위탁 운영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인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만6~12세 초등학생소득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만6~12세 초등학생저소득/맞벌이가정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만6~12세 초등학생저소득/맞벌이/일반가정 자녀

◆ 분석틀 마련

4. 제주지역 사례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과제

● 사례조사 개요

- 목적 : 지역 유형화별 방과후 돌봄을 위한 마을의 연계자원 활용 방안 도출
- 대상 : 제주도내 8개 지역의 돌봄운영 사례 기관별 관계자, 학부모 등 총 26명

구분		도시형		도농복합형	
사례 지역	제주시	과밀도시형	구도심형	동부	구좌읍
	서귀포시	화북·삼양동 (삼화지구)	삼도동	서부	한림읍
		대륜동 (혁신도시)	서홍동	동부	남원읍
				서부	대정읍

- 내용 : 분석틀 근거로 각 사례별 대상, 내용, 시간, 공간 측면에서의 운영실태, 돌봄의 지역실태, 정책요구 등에 대한 의견수렴
- 기간 : 2020. 5. 7. ~ 7. 21. 일정 조율을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

4. 제주지역 사례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과제

◆ 제주지역 돌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구

돌봄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다양한 가족형태 고려한 돌봄서비스 필요학기 중 공적 돌봄, 틈새 돌봄, 긴급 돌봄 및 방학 중 돌봄 필요
돌봄 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학년별 발달단계 고려하되안전한 돌봄 및 정서적 지원, 따뜻한 먹거리(급식)가 중요
돌봄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돌봄이 필요한 지역에 돌봄 기관이 우선 설치되도록 해야 함지역(읍면동)별 돌봄 시각화 대시간조사 필요
돌봄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아동에 대한 이해 및 신뢰가 필요하므로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필요단, 시간제 교사의 경우, 경험이 있는 공동체 활동가, 퇴직교원 등 활용 가능

4. 제주지역 사례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과제

◆ 개선과제

지역 유형 및 사례 지역		개선 과제
과밀도시	제주시 삼화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적돌봄 기관 확충 및 틈새돌봄 연계 추진
	서귀포시 대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거주 근접성 고려한 틈새돌봄 지원 필요
구도심형	제주시 삼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유휴공간 연계 지원을 통한 돌봄기관 안정성 강화
	서귀포시 서홍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관 현황 및 수요조사에 따른 수요와 공급 매칭
읍면지역	제주시 구좌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농촌지역의 방과후 돌봄 거점 기관 기능 강화
	제주시 한림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애월읍의 돌봄수요 파악 및 공적 돌봄기관 확충 검토
	서귀포시 남원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농촌지역의 방과후 돌봄 거점 기관 기능 확대
	서귀포시 대정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농촌지역의 수요와 공급 매칭 및 차량이동 지원

5. 제주지역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전략 및 과제

◆ 기본 방향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방과후 돌봄 지향

-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위해,
돌봄기관 및 마을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방과후 돌봄 필요

● 방과후 돌봄의 협력적 관계로의 체계화 지향

- 전문역량을 갖춘 마을돌봄 기관의 정체성 존중과 상생 협력 지향
-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돌봄 공급계획 수립 및 체계적 지원 방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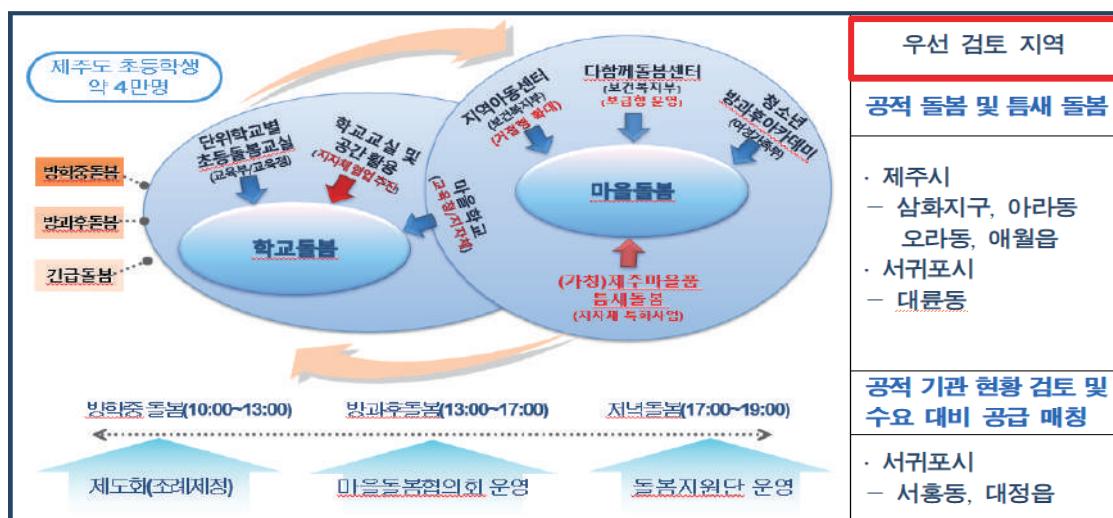
● 아동중심의 통합적 방과후 돌봄 지향

- 거주지 중심의 접근성과 안전성 확보 및 아동의 전인적 성장에 초점

5. 제주지역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전략 및 과제

◆ 추진 전략

● 제주지역 방과후 돌봄을 위한 돌봄체계(안)



5. 제주지역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전략 및 과제

◆ 추진 전략

-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돌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시공간적 연결성 및 접근성, 안전성, 보편성 보장을 위한 마을 돌봄 연계
- 지역 방과후 돌봄기관의 질 관리 및 통합적 돌봄 협의체계 구축
- 지역의 수요자 요구에 맞춘 다양한 돌봄 서비스 강화
- 전담조직 구성 및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
 -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정 필요
 - * 목적, 정의, 도지사책무, 적용범위, 돌봄지원사업, 협의회 설치와 구성 등 명시

5. 제주지역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전략 및 과제

◆ 정책과제 1 ● 지역별 돌봄 수요조사를 통한 공급계획 수립

- 목적 > 제주지역에서 실현 가능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의 중장기적 공급계획 수립
- 대상 > 제주지역 학교단위별, 지역(읍면동)별 돌봄수요 및 실태조사 실시
 - > 학교돌봄은 초등돌봄교실을 중심으로 학교단위별 수요 및 실태조사
 - > 마을돌봄은 기본 공적돌봄사업 및 지역특화사업 중심으로 수요 및 실태조사
- 내용 > 학교단위 및 마을단위별 수요추정 및 운영실태 조사
 - > 지역(읍면동)별 돌봄 공급계획 수립
 - > 3개의 군집의 특징 및 돌봄지원 방향의 추정(안)에 따른 운영
- 기대효과 > 마을돌봄기관 정체성 존중, 상생 및 지역별 특성 고려 돌봄 수요 대비한 공급

5. 제주지역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전략 및 과제

◆ 정책과제 2 ●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협력적 마을돌봄기관 운영체계 구성

- **목적** ➤ 돌봄시설 간 상생·협력의 체계적 운영체계로 양질의 마을돌봄 운영 유도
- **대상**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학교돌봄 및 지자체특화사업의 공동체 등
- **내용** ➤ 마을돌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가칭)제주아동돌봄협의회” 구성 운영
➢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간의 시간적·공간적 협력적 연계방안 모색
➢ 협의회에서 마을돌봄의 대상, 내용, 시간, 공간 등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돌봄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와 이용자격 요건 완화 등 다양한 구조로의 운영 모색
- **기대효과**
 - 기존 마을돌봄기관의 정체성 확립 및 질 관리와 지역별 돌봄 공백의 사각지대 해소

5. 제주지역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전략 및 과제

◆ 정책과제 3 ● 돌봄지원을 위한 민간 돌봄자원 발굴 및 지원단 운영 활성화

- **목적** ➤ 긴급 및 틈새돌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추동력 있는 민간자원 발굴 및 지원단 운영
- **대상** ➤ 모든 아동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돌봄공동체, 마을회, 자치회 등
- **내용** ➤ 마을돌봄지원단을 ‘(가칭)제주마을품 틈새돌봄’의 지자체 특화 시범사업으로 운영
➢ 돌봄공백 시간대의 접근성 및 안정성 고려한 마을돌봄 기준시설과 공간 협력 운영
➢ 지자체특화사업으로 추진해 온 자발적 주민참여인 돌봄공동체 연계 가능
➢ 운영위원회 구성에 “(가칭)제주아동돌봄협의회” 및 다양한 운영진 포함하여 협의
➢ 보편적 돌봄과 선별적 돌봄 제공을 혼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가능
- **기대효과** ➤ 지역특화 돌봄사업 육성 및 상생적 돌봄문화 형성에 기여

5. 제주지역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전략 및 과제

▪ 예시: (가칭)제주마을품 틈새돌봄 운영 가이드라인(안)

구분	내용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설규모는 33m²(10평)이상. 단, 아동 1인당 3.3m² 이상(동시간대 이용 아동 기준)방과후 돌봄서비스에 적합한 활동실, 화장실, 사무공간, 조리공간 등을 갖추어야 함타 돌봄시설 등에 병행 설치하는 경우 화장실, 사무공간, 조리공간 등 공동사용 가능 <p>※시설규모: 제주도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공모 기준 적용</p>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상시돌봄 및 일시돌봄 등 마을 여건에 따라 운영(학기 중) 평일 13시~19시 / (방학 중) 평일 09시~19시
이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6학년 아동(동일연령 아동 포함)소득수준 무관, 마을별 돌봄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 정할 수 있음예시: 맞벌이 및 부모 가정, 가구내 다자녀장애환자가 있어 자녀 돌봄 어려운 경우 등

참고: 제주도 수눌음육아나눔터 공모 및 보건복지부의 '2020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운영 및 예산 지침

5. 제주지역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전략 및 과제

◆ 정책과제 4 ● 돌봄 인력의 전문성 및 돌봄의 질을 위한 지원

- 목적 > 돌봄인력의 전문성 관리를 위한 지원 및 자원봉사자 발굴 등 공적 돌봄의 여건 조성
- 대상 > 마을돌봄에 참여하는 모든 돌봄 인력과 돌봄시설
- 내용 > 돌봄 인력의 전문성 관리를 위한 주기적 연수 및 돌봄 봉사인력 지원
 - > 돌봄 컨텐츠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인력풀 지원
 - > 지역(읍면동)별 특성에 적합한 공적 돌봄기관으로의 전환 시 공유공간 제공, 차량지원 및 인건비 지원 방안 적극 검토
- 기대효과 > 양질의 신뢰로운 마을돌봄 운영 및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 만족도 증진에 기여

주제발표 2

서울 강북지역 초등 방과후돌봄 사례

박수진

(강북혁신교육지구 실행추진단 공동단장)



01. 강북혁신교육지구 이해-운영협의회

01

★ 강북혁신교육지구사업의 특징 : 거버넌스

거버넌스를 통한 혁신교육지구 공동운영

사업의 기획, 계획, 실행, 평가, 환류 모든 과정의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협의회 : 최고 심의 의결기구

* 공동운영위원장(4명)

-구청장, 교육장, 구의장, 민간대표

*운영위원

-초중고교장(3), 초중고교사(3), 초중고특수학부모(3), 중고학생(3), 지역주민(3), 구의원(2), 시의원(2), 구청지원청 국장(2) 등 35명 내외

*연 4회운영

02. 강북혁신교육지구 이해-실행추진단

02

❶ 강북혁신교육지구사업의 특징 : 거버넌스

거버넌스를 통한 혁신교육지구 공동운영

사업의 기획, 계획, 실행, 평가, 환류 모든 과정의 민관학 거버넌스

실행추진단 : 일상사업추진기구

* 공동단장

-구청과장, 교육지원청과장, 민간대표

* 위원

-구청(5, 팀장, 주무관), 지원청(3, 팀장, 장학사, 주무관), 분과장
(4,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교육), 사무국장 등 총 15명 내외

* 월 2회운영

03. 강북혁신교육지구 이해-주체별 분과

03

❷ 강북혁신교육지구사업의 특징 :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한 혁신교육지구 공동운영

사업의 기획, 계획, 실행, 평가, 환류 모든 과정의 민관학 거버넌스

분과 : 주체별네트워크(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교육)

* 분과별 정기회의

-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교육분과 회의

- 분과별 1회 운영

* 분과별 네트워크파티

- 분과장 선출

* 민간대표자회의

- 민간단장, 분과장, 사무국장 주1회 회의

* 토닥토닥더불어숲

- 분과전체네트워크, 성과공유, 계획공유, 민간단장선출 등

04. 강북혁신교육지구 이해-사업별 거버넌스

04

❶ 강북혁신교육지구사업의 특징 :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한 혁신교육지구 공동운영

사업의 기획, 계획, 실행, 평가, 환류 모든 과정의 민관학 거버넌스

사업팀 : 사업별 거버넌스(20개사업, 10개 사업팀 구성)

- *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운영
- * 배움과 삶을 위한 마을활동
- * 어린이청소년 자치활동

강북

..... 포스트 코로나, 혁신을 혁신하라! 3탄

성

혁신에 사람, 혁신의 사람

사업팀공모

- * 방법 : 제안사업
- * 기간 : 2021년 7월 1일 ~ 2021년 8월 31일
- * 대상: 강북구 거민, 거주자, 관내 학교와 단체, 비영리단체, 학부모, 학부모회, 학부모연합회, 학부모방문단, 전문가100명, 전문가100명, 전문가100명
- * 사업팀
- * 기획단

SECRET

혁신교

수준에 맞춰주세요



06. 틈새돌봄의 필요성 1

06

❶ 현재 돌봄시스템

학교내 돌봄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온종일돌봄

1, 2학년 중심
학교내 장시간 체류
자율성 없음

복지대상 중심
멤버쉽 강함
자율성없음

자치단체별 상이
원거리

“**동네 가까운 곳 자유로운 돌봄 필요**”

07. 틈새돌봄의 필요성 2

07

❷ 안전하지 않은 사회, 책임지지 않는 사회

"코로나19로 아동학대 증가"...강제력 없는 현장 조사

Posted : 2020-06-10 21:45

송고시간 | 2020-06-10 21:45

08. 틈새돌봄의 특징

08

❶ 제도와 제도사이 틈새, 조건없는 돌봄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우선순위
찾아내기
연계하기
갈곳없음틈새로

초등 전교생

부모가 오기전
자유롭게
머물러 있을수 있는
편안한공간

동네에서
혼자 노는아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가도
결국 돌아올 곳
물마시려, 에어컨쐬러

“**자유롭고 안전하게 더불어 즐겁게**”

09. 강북혁신교육에서 틈새돌봄 사업의 추진과정1

❷ 아이들의 목소리

학교돌봄 부족

방과후 학교에 남아있는 것은
퇴근 후 직장에 계속 있는 것
돌봄교실 밖은 위험해!

지역아동센터 부족

정해진 인원 외에 추가 어려움
우선순위
정해진 시간표

틈새의 아이들 안전한 공간 필요

여기도 저기도 끼지 못하는 아이들
사교육 학원으로 뻥뻥이
연락안되는 아이들 부모마음

쉬고싶은 아이들

프로그램은 이제 그만
나도 쉬고싶어요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고 싶어요

·
:

10. 강북혁신교육에서 틈새돌봄 사업의 추진과정2

❶ 비전, 방향 제안-참여자들의 세부계획수립

시범사업선정

1,000만원 시범사업운영

없는예산 마을이 품다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간담회
일부예산 지원, 사업팀구성

수요조사

진짜 필요한가?-학부모 수요조사
다른 돌봄과의 관계-학교, 지역아동센터

정규사업

성과는 수치가 아니라 만족도
학교 앞 안전한 공간, 친한 어른

11.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학교-마을 교육·돌봄공동체

❷ 공적 교육과 공적 돌봄의 패러다임 변화

전국적인 변화

혁신교육지구
교육우선지구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학교와 마을의 소통

학교의 필요/마을의 가능성
현실적이고 풍성한 교육과정

책임과 권한

아동중심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책임

삶을 위한 교육·돌봄

시간에따라, 공간에따라가 아닌!
아이들 삶의 시간, 삶의 공간을 아우르는
전면적 시스템구축

12.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예시)

12

● 마을의 어른이 마을의 선생님으로

마을배움터

초등학생 대상
마을의 공간 개방
걸어서 10분이내
안전하고 재미있는 공간

찾아가는 학교밖(위기) 청소년지원사업

움직이는 청소년 카페
길찾기여행
개인맞춤형프로그램 지원
정서지원

마을에서 삶을 찾는 디딤돌학교

고등학생 대상 진로프로그램
알고보면 순하고 귀여운 아이들
돈 쓰고 시간 들이는 보람?

마을교사활동지원사업

연구동아리 지원
기본교육과정, 심화교육과정 운영
지성감성인성창의협력교사
지역아동센터 마을교사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별처럼 혼자서 가라.

현명하고 올바른 벗들을 만난다면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과 무리지어 함께가라
“숏타니파타”

감사합니다.



강북혁신교육지구 실행추진단 공동단장(민간대표) 박수진. 010-5595-5765 hhwangso@naver.com

토 론

좌장: 고보선 교수
(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 ▶ 염 미 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 김 진 훈 (복지 in 연구소 소장)
- ▶ 김 명 선 (제주 종달초등학교 교장)
- ▶ 박 미 란 (구좌읍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센터장)
- ▶ 이 승 아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 ▶ 김 인 영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과장)

토론.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돌봄 체계 구축과 ‘제주형’ 돌봄체계 구축 사이”

염미경 제주대학교

● 평가

- 최근 한국의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분야는 사회적 관심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초등돌봄서비스는 초등학생의 바람직하고 균형있는 성장 발달과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반 보호 및 교육활동으로 정부부처(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2012년 이후 정부부처의 초등돌봄정책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시도를 해오고 있다. 또한 한국은 그 추진배경 면에서 저출산 문제와 이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돌봄정책을 중시하고 있고 방치되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필요와 아동의 건전하고 균형있는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적은 예산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초등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 검토 및 사례분석, 지역유형화를 통해 분석틀을 마련해 초등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전략과 과제를 도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의미를 지닌다.
- 토론은 몇 가지 제언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 초등 방과후 돌봄을 하는 학교 주변지역 특성과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의 요소가 중요할 것 같다. 도시와 농어촌지역 입지 초등

학교 여부가 중요한 것처럼! ⇒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 속에서 학령 인구 감소, 학급수 감소(폐교화) 추세에서 학생수에서 어떤 추이를 보이는 학교인지 아닌지,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지역 생활여건과 학부모의 특성을 고려하면서(지역과 학교 특성) 돌봄교실의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 재학생들이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인지 아닌지 등 지역실정에 맞게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과 프로그램이 운영은 되고 있는지, 아니라면 그것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제언하는 형식이었으면 한다.

이때 학교 주변의 환경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농촌학교인 경우 그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도 활성화하는 방안까지를 생각하면서 현안 대응을 모색했으면 한다. 이것이 지역특성에 맞는 초등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은 아닌지...

- 변화하는 학교 여건과 교육방향 그리고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 지역특색에 맞는 활동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와 함께 초저출산 시대에 초등학교의 활성화방안 마련과 함께 초등 방과후 돌봄을 얘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지역사회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확대해야 하며 예체능 관련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는 방안, 지역 특성상 저소득맞벌이가정·학부모가정·조부모가정 등 중이하 소득층이 다수로 사회취약계층 비율이 높은지 아닌지 등을 파악해 해당 지역실정에 맞게 돌봄교실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 학교가 입지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방과후돌봄 활동에 활용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돌봄프로그램의 장이 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는 큰 틀 하에서 초등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이 논의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해야만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해당 초등학교와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가 판단하기에, 한국의 초등돌봄정책은 예산 면에서 볼 때 각 부처별로 국비 또는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고,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 소관,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소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 소관이며, 그 외 지방자치단체로서 제주도의 사회적 돌봄사업이 있다(이에 대해서는 이 연구서에도 제시).

⇒ 제주지역에서 이들 사업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것은 이들 운영주체로서 정부부처 간 연계협력이 부족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정부부처 운영 돌봄사업들이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외에 행정안전부(기존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반 지원활동의 역할을 해왔는데, 정부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초등 방과후 돌봄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사업과 비교해 무조건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주도가 운영하는 사업이 지역실정에 더 맞는다고 강조하는 것의 근거나 이유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면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각 프로그램별 그리고 프로그램 간 심도 있는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각 정부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사업 서비스 제공에서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각 정부부처 사업 간 비교를 통한 각 돌봄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부처들 간 협력방안과 각 돌봄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즉,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및 59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2에 의해 돌봄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부처간 연계를 위한 행정단위를 보면 중앙행정단위에서 돌봄서비스 기본정책 조정 및 협력이 이루어지고 시·도 행정단위에서 돌봄서비스 운영 지원 및 협력이 이루어지는데, 시·군 행정단위에서는 종합적 돌봄 수요조사, 돌봄대상 파악·선정·배치활동이 진행된다. 이에 대한 고찰과 한계점 지

적과 비판을 전제로,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돌봄사업의 장점을 논의하는 게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실제 초등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과 재구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제주도가 지원하는 돌봄사업과 정부부처 사업을 구분해 제주도 운영 사업이 지역실정에 더 적합하다고 평가하는데, 이는 당연한 것 아닌지….

- 초등돌봄정책 마련 관련 이 연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초등 방과후 돌봄정책은 아동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서비스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학교가 상호협력하여 아동과 가정과 학교 및 지역이 모두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돌봄정책은 단편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여러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며 추진되어야 하고, 방과후 실시장(場)을 기준으로 학교 중심과 지역사회 중심 및 상호연계 중심 그리고 대상 아동별로 어려운 여건의 아동 청소년 중심과 일반 아동 청소년 중심 모형 등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실제로 한국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지역실정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보다 실효성 있는 부처의 혹은 부처간 연계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부처 간 정책 사업이 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는 효과, 운영경비 절감 효과, 학생지도나 교원연수 등에 있어서 양자를 연계하여 운영 할 수 있는 효과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운영주체를 학교장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옮겨가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초등돌봄교실의 실질적 운영주체는 누구인가? 학교장으로 되어 있어 학교와 교원 부담이 매우 큰 편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해야 하고, 이 차원에서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돌봄사업들의 이점을 제시하는 순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 사업을 이분법적으로 지역실정에 더 적합하다 덜 적합하다를 논의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성은 없는지를 제기하거나(혹은 민간위탁 운영방식 확대를 고려?) 하는 것도 적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만약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는 저녁돌봄교실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다. 적어도 이 부분만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한 정책 상위 결정자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총리 및 관련 부처 장관 등의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 이것들이야말로 저출산, 도심공동화, 도심구조의 재편 등 다양한 문제들로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는 현실 혹은 이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과 학교와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이기도 하며,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초등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방안이 아닐까 한다. ‘지역혁신’은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 종합

-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학교와 지역사회(다양한 층위의 주체들)가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진정하게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정부부처 운영 돌봄사업을 무조건으로 한계가 있다고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활용하고 한계점과 문제를 지적하면서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 ‘온종일 돌봄교실’(충북 보은군 수정초교 밤에도 열린 학교-정부프로그램으로 운영), ‘찾아가는 방과후 학교’(예전 급격한 도시화를 겪은 아산시 사례). 교육소외층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통해 도농간, 계층 간 교육불평등 해소 노력,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는 더욱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성 있는 교육복지 시책 요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직접 찾아가는 초·중교생 위주의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시행-충남 아산시 시행 -지역사회 시설(성당, 교회, 마을회관 등의 활용과 지역아동센터 등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시설 선정) 활용과 지역(학생 및 학부모 중심으로 프로그램으로) 수요자 의견 반영. 이러한 것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초등 방과후 돌봄 체계 구축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 ⇒ 지역사회에서 학교는 마을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학부모이기도 한 주민 단합의 가교역할을 해왔고 해나갈 수 있게(특히 농어촌지역 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돌봄정책이며, 장기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학교 활성화방향인 동시에 마을공동체 살리기라고 본다. 이러한 것까지 고려하고 예측해 초등 방과후 돌봄 현안 대응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토론.

김진훈 - 복지 in 연구소 소장

코로나 19로 방과후 돌봄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상황에 자체 없이 관련 연구를 기획하고 진행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감사함을 표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부모만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지 토론자 명단을 보니 교육과 현장, 의회와 행정의 전문가 등 마을이 다 모인 것처럼 반갑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분야별로 좋은 의견들이 충분히 제시 될 것이라 기대되며, 더불어 다른 토론자에 비해 많이 부족하겠지만, 본인 또한 마을의 일부라는 사명감으로 토론에 참여하고자 한다.

● 연구설계

1. 우선 연구 설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 연구 범위 내에 아이들의 소리를 들어 봤으면 어땠을까?
- 연구 범위 내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배제된 상태인데, 타 시도의 사례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제주지역에 없는 것이 배제의 이유는 될 수 없다.
 - 이미 제주시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모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고,

- 더불어, 2020년 7월 10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다(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등).
- 돌봄 수요 군집분석에서 군집기준을 아동(만6세 ~12세)비율과 30~40대 인구비율로 설정했는데, 아동(만6세 ~12세)비율과 아동인구로 설정해서 IPA 분석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 아동(만6세 ~12세)비율과 아동인구로 설정하면, 아동인구가 많으면서 비율이 높은지역, 아동인구가 많으면서 비율이 낮은지역, 아동인구가 적으면서 비율이 높은지역, 아동인구가 적으면서 비율이 낮은지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수립하기에 유용할 듯하다.
 - 지금처럼 분석을 하면, 연동의 아동인구(만6세 ~12세)는 아라동보다 두배 이상 많고, 조천읍지역의 아동인구(만6세 ~12세)도 아라동보다 많은데, 동일 읍면동 내 아동 비율이 작아서 군집이 달라지고 있다.
- 군집 설정 후 잘 운영되고 있는 8개 지역을 표집하여 연구를 진행했는데, 군집 내에서 램덤으로 표집했으면 어땠을까?
- 새로운 길과 방향을 모색할 때, 잘하고 있는 곳에 얘기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만, 운영을 잘 못하거나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곳에 얘기도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 전반적인 내용

1.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

- 본 연구가 정책 연구이다보니, 초등 방과후 돌봄 현안 대응에 관한 전략이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과 같이 정책 제도적인 부분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다.
- 부분적인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에서, 큰 그림의 전략 수립이 이루어 지다보니, 도출된 전략대로만 추진한다면 정말 초등방과후 돌봄 문제가 해결될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 그래서 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전략 하나하나를 추진함에 있어, 지금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과 현장 실무자 등과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미처 고려되지 못하거나 정책 전략의 미흡한 영역들에 대한 중요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한다.

• 부분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1. 제주지역 아동돌봄의 문제 파악이 먼저

-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운영기관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제주지역 지역아동센터는 2013년 73개소로 정점을 찍은 이후 현재 66개소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 인터뷰 내용처럼 학생들 모집이 힘들어서 일까? 그래서 무작정 추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만 말 할 수 있을까?
 - 서비스 이용 조건으로 인한 지역사회 인식의 문제는 아닐까? 등
- 보고서에 따르면 왜 2017년부터 다함께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전국 24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지역에만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 제주지역에만 있는 특화시설이 있다. 수눌음육아나눔터가 그곳이다. 하지만, 운영이 잘되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모들의 자조 모임의 장소로 활용되거나 그 외 시간에는 문이 잠겨 있는 곳도 많다. 성격 자체가 수눌음을 전제로 하다 보니, 체계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 즉, 제대로 된 돌봄구축을 위해서는 잘되고 있는 곳의 사례도 중요하지만, 제주지역 내 운영이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먼저 듣고 파악하여 도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2. 아이들을 나누는 정책(소득기준이 뭔지를 초등학생때부터 가르치는 정책)이 돼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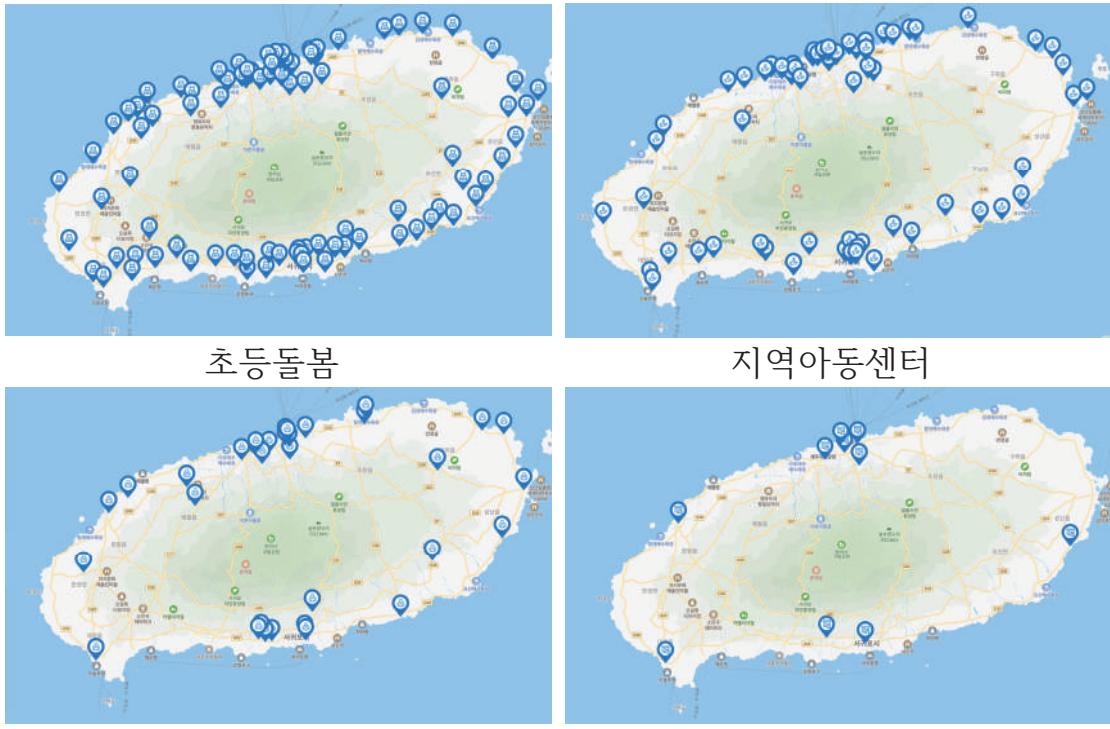
-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등돌봄(온종일돌봄)사업은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 사업이다. 이 사업 중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을 비교해 보면, 지원 기준에서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중심(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 아이들이 자라나는 공간에서 소득기준이 뭔지를 초등학생때부터 가르치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되겠다.
 - 결국 복지라는 타이틀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구분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적어도 제주지역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에 소득 기준을 두지 말자
 - 아동수당도 소득기준을 뒀다가 6개월만에 소득기준을 폐지했고, 제주도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 이러한 도의 노력이 가정과 학교 밖 돌봄 현장에서는 소득기준으로 얼룩진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무엇을 체험하고 어떤 사회를 그리며 성장하겠는가?
- 학교도 통합학교가 있는데, 지역사회 돌봄은 어떤가?
 - 2017년 제주지역 지역아동센터 이용 장애아동 2.5%, 다문화가정 아동 6.1%이다. 물론 현재 아동 이용 비율로 통합을 얘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설 구조적으로 장애아동이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 따라서 돌봄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지원 등을 통해 나눔이 아닌 하나가 될 수 있는 돌봄시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복잡하면 복잡 할수록 주목해야 하는 숫자 0과 1

- 최근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많은 정보와 데이터는 결국 숫자 0과 1로 단순화 될 때 실 생활에 응용되고 있다고 할수 있다.
 - 돌봄 시스템도 많이 생기고 있지만, 결국 0과 1처럼 얼마나 단순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가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다.
- 지역아동센터에서 다함께돌봄센터사업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
 - 노인복지쪽도 과거 노인복지시설이 추가로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하여 두 가지 사업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소득기준은 안본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소득기준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간단한 기관등록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소득기준 없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뿐이다.
 - 그렇다면 같은 사업의 시설은 둘로 셋으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단순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 보고서의 내용에 상당히 중복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무분별한 설립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히려 설립을 늘려야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용 대상자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는 필요하다.
 - 다만, 이용기준에만 차이가 있고, 서비스 내용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설립이 아닌, 무분별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운영의 노하우와 철학을 갖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3. 없는 건가? 모르는 건가?(택배도 안전하게 보관되는 시대인데..)

- 제주지역 지역방송 라디오를 듣다보면, 무인택배시스템이 도입되어 언제든지 이용가능하다는 방송을 자주 듣게 된다.
 - 제주지역은 택배도 무인보관함이 있어 안전하게 보관되는데, 아이들을 돌볼 공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제주지역에 아이들을 돌볼 공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널리 알고 있어야 하고 접근성이 쉬워야만 진정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본문중<삼도동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인터뷰, 2020. 5.7.>
돌봄기관을 찾을 때를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어린이집처럼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초등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좋을데. 돌봄체계도 그렇고 접근성도 (이용하기에) 쉽지 않았어요.
- 학부모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게 우리나라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보는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전국 1만여개 온종일돌봄 시설 정보를 살펴보고 바로 서비스 신청 및 결과까지 확인할 수가 있다.
 - 무인택배시스템도 라디오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알리는데, 온종일돌봄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 예를들어 제주도 내 온종일 돌봄 기관현황 책자를 제작하여 신입 초등생 가정에 기본적으로 보급하고,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보의 부재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모는 사라지거나 줄어들 것이다.



수눌음육아나눔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그림> 정부 24 사이트 온종일돌봄 시설별 검색 결과

4. 무엇을 만들었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 사람마다 관심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토론자의 관심은 또 ‘무엇을 만들었는가’가 아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이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건물과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작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단체원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 예를들어 돌봄과 관련하여 제주지역에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0월에 제정되어 있다.
 -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운영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센터 직원에 대한 낮은 처우 등으로 센터의 가치가 현실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지만 조례의 역할은 처음 한두 가지 사업에 기능하고 바로 소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든다.

- 만약 동 조례가 끊임없이 돌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했다면, 지금과서 새로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한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은 토론자의 관점에서 전국에 없는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생적인 수눌음사업으로 남길것인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자율적이지만 체계를 갖춘 지역 돌봄체계로 만들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 방학 때와 퇴근 전 돌봄이 요구된다는 것은 결국 부모가 일할 때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퇴근시간까지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학원을 보내는 가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수눌음육아나눔터에 차량과 인력을 파견해서 방과 후 차량운행을 통해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고, 나눔터에서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안전하게 보호만 담당해도 되지 않을까
- 그렇게 되면, 대륜동의 예에서 나눔터와 학교와의 거리가 먼 경우에 대한 대안이 될듯하다.

5. 조례를 만든다면

- 우선 ‘조례를 제정하면 정말 달라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 단순히 조례 제정 그 자체에 목적을 두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 만약 조례를 제정한다면, 조례 제정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 할 수도 있다”는 선택 규정은 줄이고,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포함하므로서 조례 제정이 현장에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조례에 상기 토론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 듯하고, 더불어, 돌봄사업에서 장애아동 등이 배제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단순한 시설 설치 지원이 아닌 구체적인 장애아동 이용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전체적인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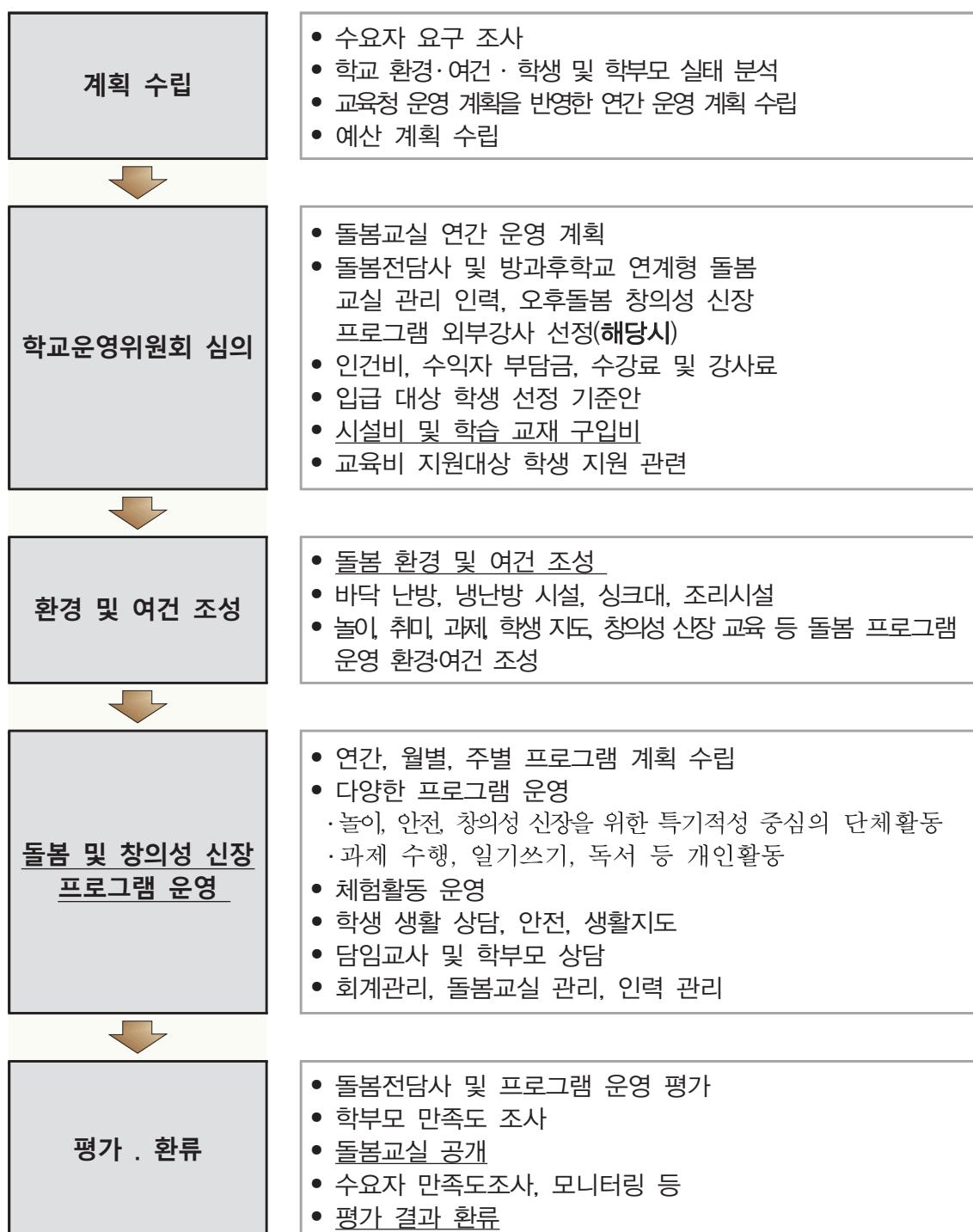
토론. 이제 초등 돌봄은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

김명선 (종달초등학교 교장)

- 연구 내용은 우리나라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을 살펴보고, 제주지역 방과후 돌봄 현황 및 사례분석을 위한 지역 유형화 및 분석틀을 제시하여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과 과제 제출
-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의 문제점
 - 부처별 사업 추진에 따른 돌봄 정책의 연계성 부족
 - 전달체계의 유사·분절에 따른 체계적 정책 수행의 어려움
 - 공적 돌봄 시설 기준에 따른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의 한계
- 사례분석을 위한 지역 유형화
 - 도시형: 과밀도시형(민주도) 구도심형(민관협력) / 도농복합형(관주도)
 - 제주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사례조사의 면담 대상: 제주 8개 지역의 돌봄운영 사례별 기관의 관계자 및 학부모
- 제주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
 - 수요 조사에서부터 전담기구 구성 및 조례 제정
-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은 돌봄수요에 따라 연중 운영 원칙(방학, 재량휴업일 등에도 실시)으로 하며 1실당 학생수는 25명내외이나 학교여건에 따라 27명 까지 편성 가능
- 코로나19로 ‘긴급돌봄’ 혼란과 수요와 공급 불균형

○ 돌봄 업무 : 담당 교사, 돌봄 전담사, 행정실과 교육지원청

- 돌봄 교실 운영 안내, 운영 계획 수립, 돌봄 신청서 접수, 심사, 돌봄 강사 관리, 간식 품의, 각종 민원 접수, 공문 처리(현황파악공문 수시 접수 및 처리) 등. 돌봄 전담사가 자리를 비울 때 실제 돌봄 담당하기도 함. 특히 돌봄 교실에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음.



○ 겸용 교실 문제

-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초등돌봄교실이 대거 확대되면서 유휴교실은 돌봄교실로 전환되었고, 그도 부족해서 음악실, 미술실 등등 특별실을 초등돌봄교실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현장에서는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필요한 예체능 수업에 어려움이 생김.

- 진정한 돌봄은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부모가 안정적으로 돌보는 것이 최우선이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맞벌이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혜적인 돌봄이 아니라 모든 아동에게 부모 돌봄이 가능하도록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역할은 학습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지적·사회적으로 충분히 발달 될 수 있도록 차이를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정규 교육과정안에서의 돌봄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자리매김해야 한다.
- 이제 초등돌봄은 보편적 복지 관점으로 정책이 고민되어야 한다. 지역 사회는 국가의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지역의 생태와 문화를 네트워킹하여 지역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 초등돌봄 지자체로의 일원화

○ 미래의 시민으로의 학생이 아닌 학생 시민으로 관점 전환 필요

토론. 우리마을 아이들이 만들어 가는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박미란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장, 마을교육공동체 '별밭' 대표)

1. 들어가며

앞서 '제주지역 초등방과후 돌봄 체계 연구'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의 초등 방과후 돌봄 사례와 방안을 공유하는 이 자리가 지역아동센터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다.

현정부의 주요정책이자 지역돌봄 협력체계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다. 특별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돌봄에 관련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방과후 돌봄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만으로 매우 뜻깊은 자리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주지역에 특성에 맞는 돌봄 체계 협력방안이 모색되길 바라며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구좌의 경험을 토대로 마을과 학교 간 연계협력, 마을자원과 센터간의 연계협력 등 사례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교육전문가는 아니기에 교육공동체 발전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안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마을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왔고, 마을공동체 일원으로 마을과 아이들,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떻게 변화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해 본 경험과 소감을 지역아동센터 아동중심으로 나누고자 한다.

2. 마을 속 학교, 학교 속 마을

오래전 학교와 마을의 경계가 분명치 않은 시절에는 학교가 마을이요. 마을이 학교였다. 마을은 아이들이 배워야 할 교육과정이요. 실제 배움이 일어나는 배움터였다. 가정과 마을, 학교가 통합체가 되어 아이들을 키웠다. 하지만 지금은 가정, 학교, 마을이 서로 고립되어 있다. 각기 존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기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의 주체가 교사, 학교, 학부모, 마을이 되어야 하고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협력 하여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학교가 키우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알게 된 것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조직들의 협조로 학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지금은 학교와 마을의 연계와 협력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런 현장의 사례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그럼에도 학교의 교원들, 학부모와 지역주민들, 지역사회의 기관과 단체들 대다수는 여전히 교육은 학교의 몫이라 보고 있는 듯하다. 학교 밖 지역의 주민과 기관들은 미래세대의 교육을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날이 표출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학교의 변화만을 요구한다.

최근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도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사업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나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례들이다.

‘마을과 함께’, ‘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 ‘마을교사’ 같은 말들을 자주 듣게 된다. 문화 인류학자 조한혜정은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삶의 관심과 지평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사회가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안전하고 따뜻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조한혜정 외, 2008) 학교의 높은 담벼락을 바라보고 오랫동안 현장에 있었던 저로선 학교와 마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사회와 가정이 함께 아동을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3. 꿈터, 배움터, 마을학교의 꿈, 마을몬딱학교

어느 추운 겨울날 양말도 신지 않고 동네를 헤매고 다니던 상진(가명)이와 지영(가명)이를 공터에서 만났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도 집에 가지 않는 두 남매의 이야기가 내 인생 가운데로 들어왔다. 그 만남으로 교회 안에서 공

부방을 시작했다. 단순히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간식을 주고 숙제를 봐주면서 보호하다가 2004년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가 됨에 따라 그 작은 공부방이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가 된지 16년차가 되어간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과 복지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 빈곤아동, 일반아동들의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역에서 단순 돌봄의 기능이 아닌 지역사회 아동복지관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개인의 시설을 넘어, 개별프로그램을 넘어 마을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을에서 놀고, 마을에서 배우고, 마을에서 성장하도록 노력했다.

‘한 아이’에서 ‘우리 아이’로, ‘개인’에서 ‘마을’로 함께 키우기로 마음먹은 이래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는 교육 복지와 다양한 문화 환경을 만들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배움을 희망하며 아이들과 함께 걸어왔다. 아동과 지역사회가 아동복지를 이룰 수 있게 돋고, 지역사회 아동이 자기 결정권으로 활동을 제안하고 실행하며, 프로그램으로 경쟁을 돋는 일이 아니라 공생을 도우며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대, 소통, 성장하는 지점을 만들고자 노력한 사례들이다.

○ 마을 함께 키우자

- 농촌마을 특성을 이해, 마을중심 ‘함께 키우자’
- 학교, 마을, 지역사회에 인사하기부터 시작
- 아동청소년 성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지점에 논의
- 단순돌봄이 아닌 교육, 복지, 문화 다양한 활동과 지역사회가 결합된 성장지원
- 우리동네 교육복지 배움터 꿈비디 네트워크 체계 구축하여 배움터간의 연대
- 농어촌지역 학교와 지역기관 결합자원의 교육복지 지원망 구축

○ 구좌꿈비디 네트워크로 지역사회와 연대, 소통, 성장 지원

- 구좌 아동청소년 전래놀이 ‘한마당 고치놀게 마심’(구좌읍,학교,센터,청소년지도협의회)
- 희망을 노래하는 구좌어린이합창단(구좌관내 3개센터 연합, 지역사회로 확대)
- 꿈을 연주하는 구좌청소년오케스트라(함덕고등학교 음악학교, 제주대음대 진로까지 확장)
- 구좌어린이발레단(문화센터가 없는 마을에 문화센터 역할)
- 구좌에 자긍심을 키우는 구좌어린이기자단(우리마을 지키고 알린다, 마을소개, 영상뉴스, 신문제작, 세화해녀민속오일장 홍보대사로 활동)

- 2004년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해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기(마을안전지도, 설문조사)’, ‘깨끗한 마을 만들기(분리수거와 해안가 쓰레기문제, 꽃밭조성)’, ‘세화씨 지키장’, ‘부모와 자녀들의 친밀감을 위한 우리자녀 안아주세요’ 등 생활복지운동, 지역사회 캠페인
- 4년째 아이들이 쓴 글을 모아 책을 출판하고 우리마을 사진과 영상으로 구좌마을 아카이빙(구좌바라기, 곱닥한 구좌마을 구좌사람들 사진첩, 사진에세이집 제작)
- 마을신문, 마을팟캐스트 방송, 마을영화관
- 사회적 농장 담을밭과 함께 하는 해바라기 텃밭 운영(제주농을 배우다)
- 아동청소년들이 기획, 진행하는 아끈벨롱장, 소소한 마을축제
- 마을이야기를 ‘당근이지’ 마을그림책 출판 ISBN 등록, 그림콘텐츠로 굿즈제작
- 세대를 잇는 이야기 유랑단 (마을독립서점, 풀무질, 책약방)
- 우리마을스케치 어반스케치 마을달력 제작

○ 구좌 꿈비디 네트워크로 지역학교와 연대, 소통, 성장 지원

- 구좌관내 초중고 학교상담사로 10년활동,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예방 강사, 학폭위대책자치위원회, 어머니회장 등 학교와 지속적인 만남의 지점을 만들어 감
- 평대초등학교 세화요양원 자원봉사 시 센터차량 8년간 지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연계 운영(단편영화만들기, 학교방송국활성화)
- 세화중학교 월랑제 매년 청소년오케스트라 함께 참여
- 빈집에서 성인물을 보는 아동발견, 학교와 연대하여 성교육, 상담지원
- 다톡다톡 심리정서 지원 사업 (사례관리 30case, 학교, 가정, 지역사회 연계)
- 구좌꿈나무들이 만드는 꿈꾸는 패션쇼(백제예술대학모델학과, 세화중, 세화고, 구좌읍)
- 학교안에 학부모 동아리 지원
- 구좌돌봄협의체(명랑운동회, 돌봄프로그램 사례집 제작)
- 세화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연계
- 세화중 위클래스 맨토맨티사업 연계
- 코로나19 학교와 연대한 온라인 학습 진행
- 구좌읍학교발전협의회 연계하여 구좌4.3길 올레길 역사탐방, 자료집 제작 예정

○ 모두가 돌보고 배우는 마을교육공동체 성과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변화
- 마을에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 증대
- 마을에서 아이들 함께 키우는 일에 공동의 목표가 생김
- 아동청소년들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비슷한 결을 찾음

- 학교, 가정, 지역사회, 지역아동센터 교사들 간의 소통과 연대, 역량강화
- 아이들 세대와 어른세대가 함께 만드는 마을 문화축제
- 아동의 변화와 성장이 마을의 변화와 성장으로 확장
- 구좌지역 지역사회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전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사업으로 틈새돌봄 보완

○ 구좌 꿈비디 네트워크에서 마을몬딱학교로 전환

이처럼 문화와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 아이들에게 마을에서 놀고, 마을에서 꿈꾸고, 마을에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손을 잡는 일에 힘썼다. 발바닥으로 지역에 인사하고, 묻고, 여쭙고, 상의하고, 우리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의 문제해결이 아닌 욕구충족과 생애주기별 성장을 지원하고, 그 성장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마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농어촌에서 열정으로 시작했던 외로운 길에 “아이들이 마을의 주체적인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돋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신 마을교사들을 기반으로 “함께 누리는 구좌마을 몬딱학교’를 운영하게 되었고 비영리단체 ‘마을교육공동체 별밭’을 만들었다. 구좌에선 마을이 학교가 되고, 놀이가 되고, 공부가 되고, 생활과업이 해결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온 마을 학교 ‘별밭’은 순수한 우리말로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뜬 모양’을 밭에 비유한 말이다. 당근과 감자 양파 그리고 마늘 등 밭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구좌에서 별처럼 빛나는 청소년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돋고자 한다. 상상력을 바탕으로 무한히 꿈꾸고, 질문하고, 스스로 기획 도전하는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마을의 청년이 되고, 마을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마을 어른이 되도록 건강한 교육문화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2016년 마을에서 고라사주 100인 원탁토론이 있었다.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자리에 미래세대분과로 청소년들이 참석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반영이 되었고, 그 중 한 가지 60여 평의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전용공간이 마련되었다. 마을 어

른들이 만들어 준 공간에서 우리는 쉽 없이 고민하며 그곳에서 수작과 작당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 일을 함께 할 마을교사들을 발굴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동네 이웃들을 만들어 주어, 믿고 신뢰할 만한 좋은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델이 되어주기 바란다.

앞으로 별밭 청소년아지트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서와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일부터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흥미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놀며, 배우며, 성장하는 장으로 삼고자 한다. 이 일에 마을의 여러 기관들과 학교가 손을 잡으며 움직이고 있다.

종달초등학교, 하도초등학교, 세화초등학교, 평대초등학교, 세화중학교, 세화리사무소, 평대리사무소,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사)소도리문화연구소, 구좌읍청소년지도협의회, 구좌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녘도서관, (사)벨롱장, 바람공장(사회적기업), 그린정서상담센터, 우리하도지역아동센터, 종달지역아동센터,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가 마을교육공동체의 네트워크망으로 연결되어 함께하고 있다.

별밭 마을교육공동체에서는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성장하는 아동청소년 교육복지네트워크를 더 촘촘하게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 마을 안에서 우리아이들을 위한 교육복지문화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기관(학교, 지역아동센터, 지역기관, 전문단체, 시민단체, 지역사회 등)을 연결하고, 구좌지역 활동가들과 마을교사들이 마을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그곳에서 ‘사람살이’와 ‘마을살이’ 청소년들에게 배우게 하며 주도적, 참여적, 주체적인 우리 마을의 주인으로 성장하도록 마을 모두가 돌보고 배우는 마을교육공동체 마을 몬딱학교를 만들어 갈 것이다.

4. 온종일 돌봄의 바람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노무현정부 시절 돌봄의 핵심은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이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이름만 온종일 돌봄학교로 바꿨을 뿐 말이 돌봄이지 그냥 학교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을 담보로 붙잡아 두는 정도에 불과했다. 돌봄에 대한 거시적 정책의 부재로 이름만 바꾸어 운영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름은 온종일 돌봄교실을 바꿔 운영하게 된다. 단지, 큰 변화로는 저 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밤 10시까지 학교에 맡아주는 초등학생 대상 온종일 돌봄교실을 무리하게 시도하려고 했다. 과도한 학습 노동력을 강요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이 역시 학교들의 반대로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급기야 방과후학교를 학교가 아닌 자자체에서 나서야 한다는 논리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학교에서는 교사가 사교육 시장에 내몰린다는 정규 교육 과정에 침해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의의제기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명칭이 또 바뀌게 된다. 방과후학교와 방과후돌봄이 혼재한 상황에서 완전한 보편적 돌봄체계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다함께 돌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지역마다 조성된 돌봄 이용시설 등은 ‘사교육을 통한 공교육이 무너짐’과 ‘사교육비 해소’, ‘여성의 사회진출’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전인적 돌봄개념’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큰 변화라고 생각된다.

단순돌봄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복지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복지에 있어서 돌봄과 복지에 대한 이해가 전문성이나 실천적 관점에서도 대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대두된 커뮤니티 케어 역시 이런 생애주기별 돌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5.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공동체를 꿈꾸며

구좌에 교육 미래를 꿈꾸며 경제적 빈곤, 가족해체, 방임의 위기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학교 안에서의 노력만으로 우리사회의 교육문제 해결과 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학교 밖의 다양한 배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새로운 교육공동체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공동체성을 먼저 회복하고 마을을 품을 때, 학교가 마을이 되고, 마을이 학교가 된다. 학교는 마을을 위해 교육하고, 마을은 학교를 위해 협력한다. 학교는 교육의 장을 학교 울타리 안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마을 전체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역은 여러 기관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연계한다. ‘마을을 품은 학교’ ‘학교가 품은 마을’이 우리의 미래여야 한다.

마을에 오랫동안 축적된 역사와 문화유산 그리고 자연환경과 풍부한 경험을 지난 사람들이 학교교육을 풍요롭게 생기 있게 할 것이다. 학교의 다양한 시설들, 새로운 지식과 기술, 전문성을 갖춘 교직원들은 마을에 새로운 가능성을 심어주는 중심센터가 될 것이다. 협력만이 상생의 길이다.

6. 마치며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라고 한 간디의 말이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은 마을이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임을 강조 한다. 모든 아동이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는 “우리 마을 아동복지관 “지역아동 센터”를 꿈꾼다.

모든 생물이 특정한 생태계 내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둘러싼 환경의 교육, 사회, 문화적 요소들에 영향을 받으며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학교 밖에서도 건강한 교육환경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 온 마을이 상호간의 그리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며 건강한 교육문화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2004년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가 되면서부터 시대에 변화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계속 바람이 불었다. 그럼에도 센터 현장을 지키며 오직 아동들만 바라보

았다. 돌봄과 복지 그리고 교육을 그 어느 것도 놓을 수 없는 아동복지의 현장에서 단순돌봄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복지적 개념에서 시선을 두고 생애주기별 성장을 위한 교육공동체, 배움공동체, 아동복지관을 꿈꾸면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지역아동센터는 모든 아동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돌봄과 지역아동센터 돌봄을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정원외 시간제 돌봄, 틈새 돌봄이 이루어지는 촘촘한 돌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둘째, 제주지역 내 돌봄협의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길 바란다. 우리나라 돌봄정책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주요법적 근거가 다르고 돌봄 정책의 연계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만든 돌봄협의체는 실상 유명무실하며, 형식적이다. 책임성 있는 담당자들이 정례화된 논의구조에서 돌봄에 대한 생각의 결을 맞추어 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인시설을 비영리단체나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옷에 맞지 않는 틀거리보다 공공성을 담보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타지역 사례도 있다.

넷째, 지역사회 다양한 마을사업안에 아동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필수사항이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영역안에서도 노인복지, 장애복지 보다 아동청소년 복지영역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요즘 활발한 마을사업안에 아동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래사회를 위한 필수 투자로 ‘아동복지’를 선별이 아닌 보편복지로 선회해야 한다. 아동복지가 실현되는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배움공동체의 또 다른 이야기들이 제주에서 더 많이 들려지길 꿈꿔본다.

토론.

이승아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토론.

김인영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과장

